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자.
여호수아기 4:1-7
센트럴 신학대학원 120 주년 기념과
한국부 10 주년 기념식
2021 년 11 월 11 일

1973 년, 시카고에 있는 110 층짜리 시어스 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1998 년까지 그 기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75 년 시어스 타워의 스카이 데크가 개장한 이후,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시카고와 그 주위 도시 전망을 보기 위해 건물로 몰려들었습니다.

2009 년, 건물주 시어스 로벅이 자신의 타워를 매각한 후, 시어스 타워의 이름은 윌리스 타워로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윌리스 타워 103 층에 타워에서 건물 밖으로 4 피트정도 연장되는 소위 '유리상자'로 여겨지는 '**레지**'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를 즉시 시작했습니다. 이 유리상자는 지상에서 1,353 피트 그리고 공중에서 1/4 마일정도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지위에 올라가 걸으시면 유리상자 바로 밑에서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카고 강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지위를 걸어 본 관광객들은 그 경험이 짜릿하고 스릴 있고 무섭기 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 위를 걸을 수 없었던 방문객들도 있었습니다. ... 그들은 레지위에 한두 걸음만 걸어가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는 바람에 너무 어지러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고,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 관광 가이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문객들에게 먼저 레지로부터 등을 돌리고, 시선은 쭉 타워 안, 자신이 있던 곳에 집중한 다음, 천천히 뒷걸음치며 조금씩 발걸음을 떼어 레지위로 올라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이 레지위에 완전히 올라간 후에는 계속해서 건물 안을 되돌아보면서 천천히 자신의 발 아래와 주위를 보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관광가이드의 조언대로 했던 방문객들은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분 동안 스스로 방향을 잡고 몸을 가다듬고 천천히 돌아선 후 아름다운 시카고 전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시카고의 관광 가이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세지를 듣고 계십니까? 역사학자로서, 저는 그의 메세지가 이렇게 들립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알고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미래가 가져올 흥분과 설렘을 받아들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Rakmi 가 읽은 오늘 저녁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시카고의 관광가이드가 전해주는 메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던 메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히브리 백성이 요단 강을 성공적으로 건넌 직후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40 년 간의 여정을 마친후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축하와 흥분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 돌 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모으고 세운 후,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 올 것입니다. "이 돌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길, "이 돌을 보십시오. 기념물로 남은 이 돌을 보십시오. . .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여기로 데려와 이 돌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전해주십시오. 이 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하며 당신들의 자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고 여기 이곳,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수와의 메세지가 들리십니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알고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미래가 가져올 흥분과 설렘을 받아들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 아이들이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그들의 삶과 믿음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센트럴의 신학 교육 120 주년과 한국부 10 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밤 예배는 우리에게 **기념의 돌**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온라인 게더링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거를 생생하게 기념할 수 있도록 도우는 **우리의 돌**입니다.

오늘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센트럴이 120 년 동안 분명한 사명을 가진 신학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센트럴의 헌장원본에는 복음의 사역자들, 선교사, 교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했던 센트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수년에 걸쳐 변형되고 변경되었지만 센트럴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목적의 명확성과 120 년 동안의 신실함을 함께 축하하기 원합니다.

오늘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센트럴이 오랫동안 환영과 포용의 장소였음을 기억합니다. 개교 후 처음 10 년 동안 센트럴은 침례교 유산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교회와 다른 전통 교단의 학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센트럴은 여학생을 학우로 환영하였고, 남학생과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학교 설립 20 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센트럴에 등록했습니다. 1920 년까지 버마, 불가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예루살렘, 멕시코, 페르시아, 러시아, 스웨덴 등 11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센트럴에 출석했습니다. 2021 년에는 12 개국에서 시민권을 보유하고 10 개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록하여 학업에 열정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센트럴이 혁신과 창의성의 장소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곳임을 기억합니다. 센트럴은 원격 교육 프로그램, 비전통적인 수업 일정, 가상 교육 기회를 구축하는 신학교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센트럴은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왔고, 신학교 입학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비 책정을 통해 신학 교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센트럴이 재정적 어려움, 제한된 선택권 및 여러 번의 폐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으로 부터 극복했고, 살아남아 보존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20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으로 부터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열었던 문을 단 한번도 닫지 않았던 미국의 중심부에 설립된 작은 한 침례신학대학원의 끈기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오늘밤, 우리는 여호수와와 윌리스 타워의 관광가이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알고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미래가 가져올 흥분과 설렘을 받아들였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밤이 센트럴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될 **우리의 기념의 돌**과 같은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다 같이 우리의 과거를 되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 앞에 놓인 너무나 높아 보여 넘을 수 없을 것 만 같은 도전과 우리를 좌절시키는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센트럴이 120 년 동안 이 세계에 가져왔던 놀라운 기여를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120 년 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바로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 주고 계셨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걸음 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공급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현실을 인정하며, 이제 미래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지금은 많은 기대와, 작은 떨림, 미래를 향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확고한 헌신으로 센트럴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특별히 지난 6 개월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앞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할 방향이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같이 협력하여 우리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세상, 우리가 함께 도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담고 있는 비전 선언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번영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구현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줄 가치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센트럴 신학대학원은 다문화를 포용하는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리드하는데 필요한 신학적 지식, 영적 통찰력, 실용적인 기술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자기성찰,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분별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제안과 비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 대상 사역자들에게 더욱 힘을 싣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를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하고, 학비가 적절하며, 언어 및 상황에 맞는 신학교육을 제공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상담학 석사학위과정, 새롭게 시작하는 채플린 자격증 과정, 가장 최근에 추가된 정의평화 사역 자격증 프로그램의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얀마를 통해 아시아적 맥락안에서의 신학교육을 통한 전략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며 언어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안 밖의 라틴계 지도자, 교회 및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필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고, 영성훈련, 커뮤니티 빌딩을 가르침과 동시에 센트럴 자체 프로그램을 더욱 넓히고 확대시켜 다른 단체들과 함께 온라인 교육자로서 다른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뛰어넘어 센트럴을 찾는 다양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도울 것 입니다.

민족과 인종의 차이
지리적 경계와 위치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성별과 지향,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

우리는 호스피탈리티(환대)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계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센트럴의 한 차원 높은 환영과 신학적 다양성을 경험한 학생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 하나인 환대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환대를 실천하며 섬길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의 친구 여러분, 지금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20 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뿌리는 무척 깊어졌고 우리의 미래도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므로, 우리는 아웃리치와 파트너십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선교를 향한 사명과 그에 따르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센트럴을 통해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들뜨고 기쁜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앞서 우리가 나눈 목표와 비전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축하합시다.